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2. 8. 8 (월)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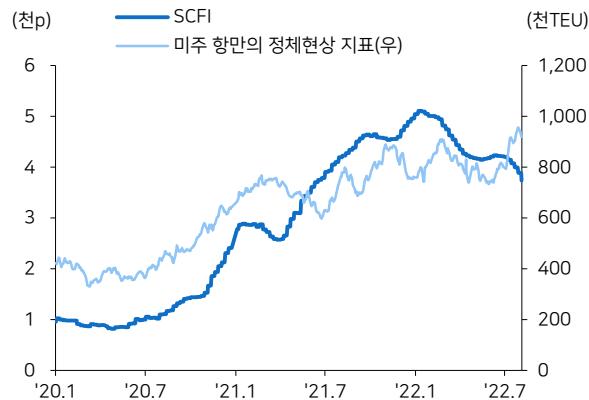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560.0p(-43.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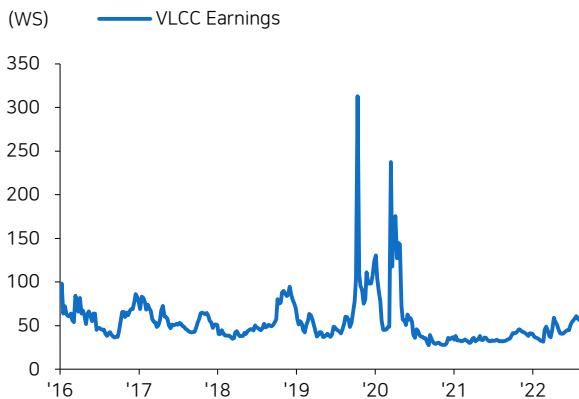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739.7p(-147.8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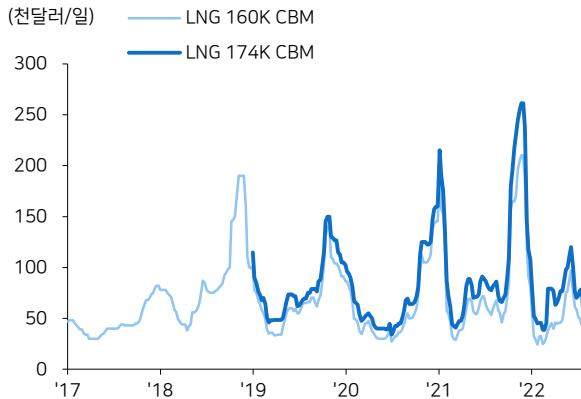
VLCC Spot Rate

56.1p(-1.7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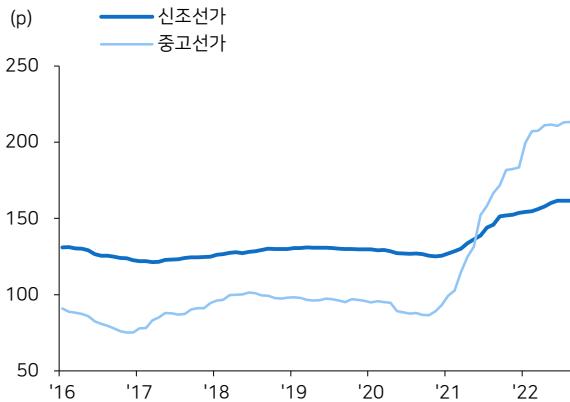
LNG Spot 운임

54.8p(+13.0p WoW)
93.5p(+48.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7p(+0.1p WoW)
213.1p(+0.1p WoW)



항공시장 지표

280.6p(+2.2p DoD)
89.0p(+0.0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해운사, 우회로·운항 축소도 검토…'원산지 변경' 불똥 떨까 비상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긴장상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며 해운과 항공사 등이 확전 양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됨. 대만해협에는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유럽을 오가는 주요 항로가 몰려 있어, 중국군의 군사 활동이 계속될 경우 물류 지원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 항공업계도 중국 정부가 대만 영공을 사실상 봉쇄함에 따라 5~6일 대만행 직항편 운항을 취소했고 7일에는 각각 1시간, 3시간씩 출발 시간을 늦춘 바 있음. (서울경제)

중국, 대만 봉쇄 훈련 종료…군사적 긴장은 지속될 듯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7일 오후 '72시간-인민해방군 실전 훈련'이라는 제목의 1분47초 분량의 동영상을 통해 대만 봉쇄 훈련이 사실상 종료됐음을 알렸다고 보도됨. 대만 교통부도 이날 정오를 기해 중국군이 발표한 6개의 훈련구역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발표함. 다만 중국이 자국 앞바다 곳곳에서 실사격 훈련을 예고하며 대만 해협의 긴장상태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연합뉴스)

UK's Biggest Container Port to Be Hit by Eight Days of Strikes

영국 최대 컨테이너항구인 Felixstowe항구 작업자들이 8일간 파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보도됨. 8월 21일~29일까지로 약 2,000명의 작업자가 참여할 예정임. 임금 7% 인상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음. (Bloomberg)

중국, 상하이 봉쇄 후유증 탈피…7월 수출 18% 증가

상하이 봉쇄 이후 큰 타격을 입었던 중국의 수출이 3,329.6억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8% 증가했다고 보도됨. 2021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상하이 봉쇄가 완화된 5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 추세임. 7월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는데, 전망치는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후퇴 우려 속에서 세계 수요가 위축돼 중국의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 속에서 나왔다고 언급됨. (조선Biz)

After 569 loss-making days, Baltic Exchange VLCC reading finally breaks zero

발틱거래소의 VLCC 운임이 19개월만에 제로 벽을 깨고 39달러/일을 기록했다고 보도됨. 2021년 1월 운임이 -644달러/일까지 하락한 이후 마이너스 운임이 지속되어옴. 운임 부진은 1) 중국 원유 수요 감소,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석유 거래 패턴의 변화에 기인했다고 설명함. 그러나 관계자들은 VLCC 시장의 부진은 과장된 측면이 있는데, 선주들이 연료를 절약하고 운항비를 아끼기 위해 저속운항을 한 것으로 언급함. (Tradewinds)

Eni fires up Angola drill rig bid process

이탈리아 Eni의 앙골라 해상 프로젝트용 드릴리그 용선 inquiry가 있었다고 보도됨. 현재 두 척을 보유하고 있음. 2024년 1분기에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드릴리그가 필요함. 입찰은 8월 12일까지임. (Upstream)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